

창조적인 지혜



金 寬 衡
〈本會 常勤理事〉

目 次

- I. 머리말
- II. 창조력의 바탕은 기본학습능력
- III. 점수보다는 문제해결력
- IV. 생활속에서 창조의 싹을

〈이번號에 全載〉

I. 머리말

사람이면 나이에 관계 없이 창조적 표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다. 어린 아이가 무엇인가 몸짓을 하고,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며, 시인이 자기 감정을 그려 내고, 발명가가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은 모두 창조적 지혜의 산물인 것이다. 인간은 이러한 창조적 표현을 통해 기쁨을 얻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창조적인 생각은 허무한 공상이 아니라 기초적인 지식,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배워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학습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러기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습 능력의 수준에 따라 창조적인 생각의 질이 달라진다. 또, 창조적인 사람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해답이 없다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고민과 인내와 노력으로 문제의 해답을 찾아 내는 탐구적 태도와 능력을 지닌 사람이다. 문제 상황에 접하여 합리적 절차에 따라 편견이나 아집을 버리고, 문제를 객

관적으로 파악하여 사물을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와 아울러 사물을 독특하게 파악하여 자신의 생각을 독창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창조적인 인간이다. 현상 그대로, 남이 하는 방식대로 행동하는 인간은 창조성이 결여된 인간이다. 독특한 안목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인간이 독창성을 지닌 인간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남과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인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관습이나 도덕률에 반하여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것을 창조적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사물이나 현상을 세밀히 관찰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창조적 인간의 모습이다.

이처럼 무엇인가 이룩한 보람, 성취의 기쁨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가수는 노래 부를 때에 행복하고, 화가는 그림을 그릴 때에 행복하며, 노동자는 새로운 상품을 멋지게 만들었을 때에 행복하고, 부모는 자녀가 바르게 성장할 때에 행복을 느낀다. 이처럼 자기가 날마다 하는 일이 자신의 창조적 표현과 일치하면 인간은 가장 행복한 것이다.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것이 자녀들의 행복일진대 그들이 창조적 지혜를 지닐 수 있도록 보살펴 주는 일은 무엇보다 소중한 부모의 역할이라 생각된다.

II. 창조력의 바탕은 기본 학습 능력

흐르지 않는 물은 썩기 쉽고, 공부를 하지 않는 머리는 녹슬게 된다. 구슬도 닦아야 빛이 나듯 창조적 지혜도 같고 닦은 학습의 바탕 위에서 번뜩이게 된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끝이 없기에 생활 그 자체가 배움이어야 한다. 배움 중에서도 바탕이 되는 것은 독서력이요 작문력이며, 수리적, 합리적 사고 방법이다. 책은 지혜의 결정이요, 이성의 빛이요 창조의 인자이므로, 독서력이 없이는 창의력을 생각할 수 없다.

작문력 또한 생각의 표출이며 사고의 열매로서, 이를 바로 익히지 못하면 생각이나 사고를 바로 할 수 없게 된다. 독서력, 작문력이 모든 학습의 바탕이 되는 것이기에 학부모들은 다른 것에 앞서 기본 학습 능력으로서의 독서력과 작문력을 길러 주는 데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1. 창조력은 독서를 통해 커 간다

책 속에는 인류의 역사가 있고 위대한 발견이 있으며, 지성을 확고히 하는 사상이 담겨 있다. 우리의 몸이 음식을 섭취하여 성장하듯 독서는 우리의 상상에 양분을 공급하고 뼈대를 제공한다.

그러나 소화력이 없이는 음식을 섭취해도 양분이 되지 않듯이 독서도 소화력이 있어야 우리의 상상이나 창의적 활동에 양분을 공급할 수 있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기 위한 독서에 있어서는 다음 몇 가지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책을 골라 읽도록 해야 한다. 아무 책이나 마구 읽는 것은 창의력을 기르기보다 오히려 인생의 낭비요 정신에 피해를 준다. 특히,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키우는 데에는 탐정물과 자서전 등이 좋다고 한다.

다만, 이런 책을 읽을 때에는 읽는 사람이 책 속에 주인공이 되어 같이 호흡해야 한다.

책의 앞부분을 읽은 후에 그 책의 후반부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독자 나름대로 상상하여 노트에 적어 보게 하는 것도 창의력이나 상상력을 키우는 좋은 방법이다.

또한, 책은 생각해 가면서 읽어야 한다. 생각

하지 않고 읽는 것은 음식을 씹지 않고 먹는 것과 같다. 음식을 씹지 않고 먹으면 소화 불량에 걸리듯이, 생각하지 않고 읽는 책은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독서 중에 읽은 내용을 그때 그때 메모하면서 읽으면 창의력 훈련에 매우 유익하다. 메모를 하는 것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사고의 훈련이며, 요약하는 일은 사고의 정리와 핵심 파악에 아주 유익하다.

2. 글을 쓰는 것은 창의력 훈련이다

글을 쓰는 일은 상상력 훈련에 많은 도움을 준다. 창의적인 지혜를 단련시키기 위한 글을 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성급하게,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글을 쓰게 함으로써 실망을 맛보게 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부터 좋은 글을 기대하지 말고, 잡지나 신문에 실린 만화를 익살스런 표현으로 묘사해 보도록 함으로써 창의력을 훈련시킬 수도 있고, 잡지에 실린 그림을 오려 내어 그림 주위에 짧은 이야기를 쓰도록 하는 것도 창의력을 키우는 좋은 방법이 된다.

글짓기 훈련 방법 중에 그림을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쓰인다. 하나의 그림으로 한 장면이나 문단 쓰기 훈련을 하며, 이어진 그림을 주고 줄거리가 서 있는 글을 쓰도록 하는 훈련을 한다. 앞부분에는 글을 주고 뒷부분에는 그림을 주어 훈련하기도 하고, 그림을 순서없이 주고 순서를 찾아 이야기를 만들도록 하기도 한다. 이런 활동을 통하여 상상력과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다.

또, 단어 놀이를 통해서도 상상력을 개발할 수 있다. 식구들이 둘러앉아 끝말 이어가기, 비슷한 말 찾기, 비유어 생각해 내기 등의 놀이를 하는 것은 창의력 개발의 좋은 방법이다.

다만, 글짓기를 지도할 때에 저학년에서는 쓰는 대상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고, 고학년에서는 쓰는 목적을 확실하게 하는 지도가 필요하다.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지도를 잘 했어도 거짓된 사고밖에 작용하지 않는다.

3. 수리적 생각의 기초를 생활화하자

오늘의 우리는 수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만큼 수와 우리의 생활과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러해도 종종 생활하는 가운데 필요에 의해 수학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고, 배우는 이로 하여금 생활과는 동떨어진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이 교사, 학부모, 어린이들에게까지 수학을 기피하고 흥미를 잃게 하는 원인이 되는지도 모른다. 우리 자녀들이 수학을 생활과 동떨어진 어려운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고, 수학적 생각의 기초를 튼튼히 마련하여 다가올 복잡한 사회에서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수리적 사고의 기본이 되는 것은 분류와 서열화 등이다.

분류를 위해서는 우선 사물이나 사실들 간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하고, 공통점에 따라 다른 사물이나 사실들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사물이나 사실들 간의 포함 관계도 이해해야 한다. 간단한 예로는 생물과 무생물, 먹는 것과 입는 것, 둥근 것과 모난 것 등으로 사물을 분류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크게 둘로 분류해 보도록 할 수도 있다.

분류를 함에 있어서는 분류 기준을 부모들이 정해 주어 분류하도록 하는 방법과, 분류의 기준을 아이들 스스로 찾아 내어 분류해 보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사고력의 발달을 위해서는 후자의 방법이 더욱 바람직하다.

논리적이며 수리적인 생각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서열화가 있다. 서열화란, 크고 작음, 우선 순위 등 어떤 관계에 따라 잡다한 사실들을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막대의 길이에 따라 순서대로 늘어놓게 할 수도 있고, 색깔의 진하기에 따라 색종이를 늘어놓게 할 수도 있으며, 시간이 오래 된 순서에 따라 사건을 제시해 보게 할 수도 있다. 이처럼 서열화는 개개의 잡다한 사실들을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해 놓음으로써 사회 현상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는 것이다.

4. 합리적 절차는 창조력을 잉태한다

우리는 항상 복잡하게 얽힌 새로운 문제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창의적 사고와 합리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적인 삶을 기대하기 어렵다.

문제를 풀어 나가거나 일을 처리하는 데에는 과학적 방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얽힌 철사를 풀 때에 아무 곳이나 잡아당기면 점점 더 얽혀 철사를 못 쓰게 되는 경우를 흔히 겪는다. 어느 가닥이 어디에 어떻게 얽혀 있는지 잘 살펴 순서대로 풀어야 쉽게 풀린다. 우리에게 부딪치는 문제를 풀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일을 과학적 방법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면 능률적이면서도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여러 번 실천하여 어려서부터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 우리에게 부딪치는 문제가 항상 똑같다면 해답을 외우고 있으면 그만이지만, 늘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해답이 미리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해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 가는 방법이 중요하다. 그 방법을 몸에 익혀 두자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거치는 것이 보통이다.

① 달성해야 할 목표를 분명히 한다.

② 관련되는 자료를 수집한다.

③ 수집된 자료에서 필요한 것을 찾는다.

④ 실천 가능한 방법 몇 가지를 정한다.

⑤ 각 방법으로 실천했을 경우에 나타날 결과를 생각해 본다.

⑥ 목표와 비교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천한다.

⑦ 실천 결과와 과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반성한다.

Ⅲ. 점수보다는 문제 해결력

시험 점수는 좋으나 발전이 별로 없는 아이, 일류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으나 사회 생활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을 흔히

보게 된다.

오랫동안의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무기력하고 수동적이며 소극적인 사람이 된 때문인지 모른다. 또, 독창성이나 강한 도전 의욕이 메말라 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으로의 세상은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모든 문제가 새로운 상황으로 전개 되기 때문에, 이미 배운 지식이나 과거의 생활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을 스스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력을 길러 주는 데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강한 호기심이나 의문, 그리고 세심한 관찰력을 지니도록 길러야 한다. 또, 유연한 생각으로 다양하게 궁리해보고 강한 집념으로 물고 늘어지는 끈기가 있어야 하며, 현상이나 사실들을 관련지어 정리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어야 한다.

1. 호기심이나 의문을 가지게 하자

창의적인 생각은 “왜?, 어째서?, 뭐야?”하는 문제 의식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문제 의식은 사물이나 현상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때에 비로소 생기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경험이 적기 때문에 보는 것마다 호기심과 의문에 차 있다. 그러기에 “그건 뭐야?, 어째서 그래?”하고 귀찮을 정도로 질문하는 것을 흔히 본다. 이처럼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물이나 일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왜 그렇게 될까?, 달리 하면 더 좋아질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게 마련이다. 그 문제를 더 깊이 파헤치도록 늘 세심한 관심을 가지는 버릇을 길러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까운 주변이나 생활 환경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또는 현재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쉽게 문제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자녀의 호기심을 기르는 데에는 부모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 교육에서는 담임 교사 한 사람이 여러 학생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줄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발명왕 에디슨의 소년 시절, 그는 호기심이 남달리 강해 선생님을 너무 당혹하게 하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나 가정에서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했다. 그와 같은 호기심이나 의문은 특수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다만, 그 짝을 밟아 버리느냐, 잘 가꾸느냐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자녀들이 “이건 뭐야?, 왜 그래?, 어째서?”하고 묻는 것을 귀찮아하지 말고 성의껏 응대하여 줌과 동시에 그런 질문이 많아지도록, 보다 좋은 질문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2. 세심한 관찰력을 기르자

우리의 모든 생각은 관찰로부터 시작된다. 관찰을 통해서 생각할 거리를 얻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

관찰이란 아무런 생각 없이 막연한 상태에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눈’이 필요하다. 똑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문제를 달리 해석하거나 달리 해결하는 것은 이 ‘눈’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특별한 ‘눈’이란, 관찰하고 있는 대상을 무심히 보지 않고, 문제 의식과 관점을 가지고 자세하게 파고들어 사물을 보는 능력을 말한다.

가정 형편 때문에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어느 소년이 목장에 취직하여 양들이 울타리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을 맡았다.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시간에는 비교적 한가하여 책을 읽고 있노라면 어느 사이에 양들이 울타리를 넘어가서 남의 농작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아 주인으로부터 혼쫌이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정신을 바짝 차려 부지런히 울타리를 돌면서 감시해도 양들은 소년의 눈을 피해 농작물을 계속 망쳐 놓았다. 무슨 좋은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며 세심한 관찰을 하였다. 그러던 중 이 소년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양들은 남의 밭으로 넘어갈 때에 가시가 있는 장미 덩굴 쪽을 피해서 가는 것을 본 것이다. ‘맛다! 울타리

를 가시덩굴처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여 만
들게 된 가시 철조망으로 이 소년은 13세의 어
린 나이에 억망 장자가 되었다 한다.

이처럼 관찰이란, 제기된 문제 의식을 가지
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 속에서 사물
을 세밀히 보는 것을 말한다.

우리 부모들은 가끔 자녀들에게 사물이나 현
상 또는 환경 등이 변하는 사례나 문제를 던져
주고, 그것들이 변화하는 모습이나 일의 흐름
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함으로써 관찰 능력
을 키워 주어야 한다.

3. 유연한 생각을 가지도록 하자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우리에게 부딪치는 문
제도 복잡하여 하나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

단시간에 커다란 효과를 기대하거나 정답 하
나에 집착하면 틀에 박힌 자녀를 만들어 복잡
한 세상을 헤쳐 나갈 능력을 잃게 되고 만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며 유
일한 공식만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자녀
들이 여러 가지로 해결 방안을 궁리해 보고 유
연하게 생각해 보는 습관이 몸에 배도록 하여
야 한다.

어떤 회사에서 새 상품을 개발하고 이름을
짓는 데 5000개의 가능한 이름을 지어 보기도
하였고, 어떤 작가는 책을 써서 제목을 붙이
는 데 600여 개의 서로 다른 제목을 나열해 보
았다 한다. 이처럼 하나의 문제에 대하여 여러 방
향에서 생각하는 태도나 기술을 익히는 것은
틀에 박힌 생각을 버리게 하고 유연한 생각을
이끌어 내어 창의적인 해결안을 만들어 내게
된다.

어느 장사꾼이 예쁜 딸과 함께 장사를 하며
살아가는데, 마음씨가 사악한 고리 대금업자
에게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고리 대금업자는 장
사꾼 딸에게 흑심을 품고 내기를 걸어 왔다. 자
루에 검은 돌 하나와 흰 돌 하나를 넣고 딸이
자루 속에서 흰 돌을 꺼내면 빚을 모두 탕감해
주고, 검은 돌을 꺼내면 딸을 고리 대금업자
에게 넘겨 주는 것이었다. 고리 대금업자가 재빠

른 동작으로 돌더미에서 돌을 집어 자루에 넣
을 때에 딸은 검은 돌만 두 개 넣는 것을 목격
하였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어 아버지가
진 빚을 탕감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상식이나 틀에 박힌 생각으로는 고리
대금업자의 속임수를 폭로하거나, 내기를 회피
하거나, 또는 검은 돌을 꺼내는 세 가지 방법밖
에 생각하지 못하고 결국 부채 탕감의 기회를
잃고 말 것이다.

독자들은 이 슬기로운 딸이 어떤 기지를 발
휘하여 위기를 모면했는지 자녀들과 함께 생각
해 보시기 바란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일을 시키거나 문
제를 제시함에 있어 하나의 정답만 있거나 일
정한 틀 속에서만 쉽게 해결되는 문제를 제시
하지 말고 다양한 해답이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여, 여러 가지로 궁리하여 해결해 보게
함으로써 유연한 사고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
다.

4. 강한 집념과 끈기를 키우자

세상에 집념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 집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
게 만드는 정신적 위력이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이 ‘빨리빨리, 쉽게 쉽
게’라는 어른들의 뺨뚫어진 생활 철학에 물들
어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일찍 포기하는
경향이 짙다. 알파한 돈벌이는 ‘빨리빨리’로 해
결을 볼 수 있을는지 몰라도 지금까지의 역사
발전과 인류의 복지에 공헌해 온 위대한 발견
과 발명은 강한 집념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다.

20여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늘 학생들이
공부에 싫증을 느끼는 것이 안타까워 자발적으
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어야겠다
는 목적을 세우고 꾸준히 노력한 끝에 ‘자발 학
습 답안지’를 고안한 여교사가 있다. 학생들이
보다 재미있게 공부하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
필요에 따라 해답이 잠깐 나타났다 이내 사라
지는 자발 학습 문제지의 개발에 착안하게 되
었다. 이를 위하여 몸져 누운 남편을 간호하면

서 자기 집 골방에 마련한 실험실에서 밤을 새우기도 하고, 관계 기관을 찾아가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였으며, 과학 서적을 탐독하여 연구에 몰두하기도 하였다. 약품을 개발하는데 감물을 온통 뒤집어 쓰기도 하고, 국내 약품 상점을 몇 달씩 뒤지기도 하였으며, 외국에까지 알아보아 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꾸준한 집념으로 학생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비밀펜’을 발명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집념은 일조 일석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집념은 나무와 같다. 나무는 처음부터 땅속에 뿌리를 깊이 내린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연약하고 어린 묘목이다. 비바람이 불면 쓰러지고, 잡아 뽑으면 뽑힌다. 그러나 정성껏 가꾸면 땅속에 깊이 뿌리 박고 큰 나무로 성장하여 강한 비바람에도 뽑히지 않는다.

인간의 집념도 마찬가지이다. 어려서부터 어떤 목표가 정해졌으면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를 길러 주는 것이 중요하다.

6학년에 다니는 자녀가 수련장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와서 이 문제는 아무리 해도 모르겠으니 가르쳐 달라고 했다. 문제를 살펴보니 꽤 복잡해서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네 노력으로 풀 수 있으니 풀어 보라고 되돌려 보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아이는 화장실에서 생각하고, 식사 중에도 생각하고, 목욕탕에서도 생각하여 지금까지 배운 학습을 근거로 사흘만에 문제를 해결해 내고 말았다. 이처럼 자녀들에게 해답을 바로 알려 주려 하지 말고 문제를 붙잡고 늘어지는 집념을 길러 주는 일이 중요하다.

5. 관련지어 정리하는 힘을 기르자

자녀가 공부를 잘 하고 창조력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잘 생각해 보라.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만 하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 하고 좋은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도와주는 일이 없다. 이에 대한 해답 중의 중요한 한 가지가 알고 있는

지식을 실제 생활 속의 사실이나 현상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게 하는 일이다.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진공에서 새로운 무엇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배운 지식이나 경험했던 바탕 위에 그것들을 관련지어 보거나, 요소를 바꾸어 보거나, 두 가지 이상을 결합시켜 보거나 하는 데서 문제가 해결된다. 예컨대, ‘90+30’을 해결할 줄 모르는 자녀에게는 ‘9+3’을 어떻게 했는지 물어 보고,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이에게는 오줌을 싸서 젖었던 바지가 보송보송하게 말랐던 생활 경험을 상기시켜 본다. 또, 전혀 성질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을 결합하여 새로운 것을 발명한 예도 많다. 바퀴와 의자를 결합하여 환자들이 타고 다니는 휠체어를 만들었고, 베개와 찬송가를 연결하여 잠자는 베개도 만들었으며, 사람의 심장과 난방을 연결하여 보일러도 만들었다. 심지어 이혼의 지경에까지 이른 어떤 부부는 남편이 우연한 기회에 부인이 자기 어머니와 닮은 점을 발견하고 더욱 애정이 두터운 부부가 된 사례도 있다.

이처럼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해결 방안을 찾으려 할 때에는 이미 배운 지식, 경험, 사실들과 관련지어 보게 하는 일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됨을 알고, 자녀들에게 그런 쪽으로의 질문을 던져 주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6. 해결의 기쁨이 창조력을 키운다

어린이는 본래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 무엇인가 생각하여 해결의 기쁨을 맛볼 때마다 생각하고자 하는 욕구는 더욱 생겨난다. 그리하여 좀더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 좀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게 된다. 부모가 문제를 해결하려 들 때면, “내가 해 볼께. 엄마는 좀 기다려.” 하는 말을 흔히 듣는다. 이처럼 자녀들에게 해결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일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며, 창의적인 노력을 키우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얻게 되는 기쁨을 부모들이 빼앗아 버리는 경우를 많이 본다. 자녀들의 방도 정리 해 주고, 방학 숙제도 다 해 주고, 일기도 써 주고, 심지어 그림도 그려 준다. 자녀들이 누려야 할 문제 해결의 기쁨을 부모가 빼앗아 간 꼴이 된다. 이래서는 매사에 자신감이 생길 수 없고, 삶에 생동감이 싹틀 수 없다. 생명의 특징은 활동이요, 힘차게 움직이는 것이다. 이러한 생동감은 일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온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 성취 만족을 누리는 사람의 삶에서 자신감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자신감은 성공의 원동력이요 승리의 비결이며, 생활의 추진력이요 창조의 뿌리이다. 그러기에 자녀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어 생기 넘치는 자기 삶을 개척하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여 해결의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는 주어지는 문제나 일이 자녀의 능력에 맞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너무 힘에 부친다든지 너무 쉬워 도전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것은 좋지 않다. “저 정도면 내가 해 볼 수 있겠구나.”하는 문제나 일감을 주어 한 단계, 한 단계씩 높여 가는 것이 도전 의욕을 키우는 방법이다. 적절한 수준으로 해결의 불확실성이 있는 문제를 제시하여 계속 탐색하려는 경향성을 유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욕이 생기고, 이를 해결하는 기쁨을 맛볼 때 고난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끈질기게 도전하는 개척의 용기가 생기며, 역경을 극복하려는 의지력이 솟구친다.

IV. 생활 속에서 창조의 싹을

우리 자녀들은 가슴을 활짝 펴고 눈을 크게 떠 앞을 내다보며 열심히 일하는 적극적인 성격, 적극적인 태도,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매사에 의욕과 정열을 가지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는 창의적인 사람이다. 창의적인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생활 자세, 태도, 생각부터 바뀌어야 한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나 습관도 바뀌고 성격이나 운명까지도 바뀔 수

있다.

이처럼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운명까지도 바뀌게 되는 것이다. 생활하는 가운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는 기회를 자주 가지게 하고, 생활 속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가 찾아보게 하고, 더 나은, 더 편리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게 하여 창의적인 생활 태도를 가지게 함으로써 적극적인 삶을 개척하도록 도와 주어야 하겠다.

1. 경험이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들은 것은 잊어 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며, 행한 것은 이해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직접적인 경험은 쉽게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고 필요할 때에는 즉각 샘솟듯이 머리에 솟아 나온다.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이미 경험한 지식의 토대 위에서 생겨난다.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 과거의 막연한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직접적인 경험은 아이디어의 산출을 풍부하게 하는 원료라고 한다.

직접 경험 중에 우리의 상상력을 키우는 것이 여행이다. 여행에서 얻은 경험은 우리의 기억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으며, 우리의 상상력을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아이디어의 산출을 용이하게 해 준다. 그러나 모든 여행이 가치로운 것은 아니다. 여행에 쏟는 노력의 정도에 따라 창의력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난다. 여행을 하며 일기나 메모를 한다든지, 우연히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 둔다든지 하면 거기에서 귀중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것이다. 어떤 신문 논평가는 이를 바탕으로 50개의 신문에 주간 논평 기사를 썼다고 한다. 한편, 지루한 기차 여행도 조금만 관심을 쓰면 상상력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한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다섯 시간 정도 걸리는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다. 지루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한 끝에 차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를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생각해 낸 놀이가 그럴 듯하면 100원씩 주기로 하였다. 그러자 아이들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기 시작했으며, 그럴 듯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100원씩 주었다.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 한 아이는 천이백원을, 한 아이는 천 원을 벌었다. 어머니의 조그만 아이디어에 아이들은 즐거운 여행과 함께 훌륭한 창의력 개발 훈련을 받은 셈이다.

이처럼 창의력 개발에는 여행의 범위가 문제가 아니고, 여행 기간의 길고 짧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새롭고 유익한 경험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자녀들에게 현장 답사나 여행을 많이 시키고 유익한 경험을 되도록 많이 얻게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2. 놀이도 창의력을 키운다

어린이나 어른이나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오락이나 놀이로 즐긴다. 특히 어린이들은 학교에 공부하러 왔는지, 놀러 왔는지 모를 정도로 생활의 대부분이 놀이이다. 놀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고, 사물이나 현상을 이해하게 된다. 놀이에 참여하는 어린이는 어떤 사태나 상황을 변경하고 설계하며 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하게 된다. 그러기에 놀이는 상상력과 창의력의 싹을 길러 주는 것이다. 물론, 놀이 중에는 상상력을 길러 주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예컨대, 외워 가지고 하는 놀이, “예”와 “아니오.”로만 대답하는 게임 등은 창의력 훈련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목두기나 수수께끼, 신문에 나오는 ‘날말로 빈칸 메우기’ 등은 창의력 훈련에 큰 도움을 준다. 심지어 가위·바위·보 놀이도 상대방의 표정을 읽어야 하고 자신이 무엇을 내야 하는지 궁리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상상력이 동원되어 창의력의 싹이 길러진다.

흔히 가정에서 자녀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는 것 중의 하나에 연상력 훈련 게임이 있다. 예컨대, 어떤 낱말 하나를 주고 그 낱말에 대하여 비슷한 성질이나 반대되는 성질의 것을 일정 시간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열거하거나, 서로 번갈아가며 열거하는 게임이다. 또는, 어떤 말에 대하여 관련되는 다른 말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말하게 하는 게임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족 게임을 고안해 보게 하고 자녀

와 함께 게임을 하면 창의력이 신장됨은 물론, 자녀들의 정신 건강이나 정서 발달에도 매우 유익하다.

이처럼 자녀들이 새로운 놀이나 게임을 고안하거나 놀이하기 전에 목표를 세우고 그를 달성하려고 여러 가지로 탐색하는 활동은 상상력을 길러 주는데 매우 유익하므로, 좋은 놀이를 선정하여 자녀와 함께 즐기는 기회를 자주 가져야 하겠다.

3. 생활 주변에서 아이디어를 찾자

창의적인 생각은 자기가 하는 일이나 자신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나 일터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다. 가정에서 비교적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실, 서재, 식당, 화장실에 있는 시설물이나 용품들에서 기발한 생각을 찾을 수도 있고, 자신의 몸치장과 관련된 모자, 옷, 신발은 물론 안경, 시계, 액세서리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 특히, 학생의 경우 책상, 의자, 학용품, 책가방, 실험 기구 등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것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으로 쉬운 예로 희망점 열거법과 결점 열거법이라는 것이 있다.

희망점이나 결점 열거법이란, 어떤 물건에 대하여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한다. 안경도 처음에는 돋보기여서 가지고 다니는 불편이 있어 지금의 안경이 개발되었고, 얼굴에 달고 다니지 않고 다니는 방법은 없을 까 궁리한 끝에 콘택트 렌즈가 개발된 것이다.

우리는 야외에서나 결혼식 피로연장, 또는 초상집에서 음료수 병따개가 없어 불편함을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리하여 손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병따개를 만들 수 없을 까 궁리한 끝에 이른바 ‘불따개’를 만든 사람이 있다. 어른 몇 명이 모이면 대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므로 라이터는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값싼 가스 라이터의 몸체에 흡을 만들어 병따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쇳조각을 부착함으로써 병따개 겸용 라이터를 만든 것이다. 이 ‘불따개’는 현재 독일, 프랑스 등지의 유럽 국가에 대량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다른 많

은 나라들과도 수출 교섭 중에 있다고 한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는지에 착상해 보는 습관을 길러 주는 일이 창의력 높은 자녀로 키우는 좋은 방법이 된다.

4. 가감승제법(加減乘除法)을 적용해 보도록 하자

우리는 실제 생활을 하면서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할 때, 자신들에게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이처럼 질문은 오래 전부터 상상력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널리 인정되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데에 이용되어 왔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질문을 계속함으로써 우리는 좋은 것, 나쁜 것, 또는 무관한 것 등 가지가지의 많은 아이디어를 짜낼 수 있다. 스스로에게 묻는 것은 문제를 좀더 최선의 해결점에 도달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다.

한편, 질문은 해결하려는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누어 계속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다.

5. 창의력을 키우는 가정 환경을 만들자

막상 가정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부모되기는 쉬워도 부모노릇 하기는 어렵다.'는 말처럼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는 일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자녀들의 창의력을 북돋우고 개발하는 문제

도 쉬운 일이 아니나 우선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데 적합한 가정 환경 풍토를 조성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가정 환경 중에서 의식주에 부족함이 없고, 각종 문화 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포근하고 사랑이 깃들고 대화가 오가는 심리적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자녀들의 창의력을 기르는 데 부모들이 잊지 말아야 할 몇 가지를 지적해 본다.

- ① 과거의 습관은 문제 해결에 방해된다.
- ② 자신감을 꺾으면 창의력이 약화된다.
- ③ 수줍음은 아이디어를 유산시킨다.
- ④ 걱려는 아이디어를 개발시킨다.
- ⑤ 친밀감은 용기를 가장 잘 북돋운다.
- ⑥ 명령이나 요구를 너무 심하게 하지 말자.
- ⑦ 자녀를 위협하지 말자.
- ⑧ 나쁜 아이라는 생각이 들게 설교하지 말자.
- ⑨ 나쁘게만 판결하고 비평하지 말자.
- ⑩ 입에 발린 칭찬은 되도록 삼가자.
- ⑪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심문하는 식으로 질문하지 말자.

이상의 여러 가지를 음미해 볼 때, 창의력을 키우는 데 좋은 가정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화목한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완전한 인격체로 대우해 주는 민주적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같다. 무조건 엄하고 어른 중심적이며 가부장적인 가정 풍토는 자녀의 창의력 신장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신간안내

「産業財産權法 判例要覽」

도서출판 특허문화는 1961년부터 1991년까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모음집인 「産業財産權法 判例要覽」을 발간했다. 이 책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特許上告事件은 물론이고 民·刑事 등의 판례 전문·핵심이 되는 부분을 발췌하여 法律條文別, 內容의 性格別, 判決宣告日字 순으로 편집되어 있어 이용하기 쉽고, 나날이 늘어나는 知的財産權 紛爭에 도움이 되는 실무서이며, 이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법령의 이해를 높일 수 있게 엮어져 있다. (도서출판 특허문화(565-0205)(4×6배판, 470면, 20,000원)

